



지식 '보따리장수'들의 진솔한 항변

《대학이여 우리는...》
펴낸 심선옥 씨

대학강사들이 털어놓는 진솔한 생활이야기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렇게 힘들고 제대로 대접도 못 받는데 뭐하러 대학강사하나 싶은 의문이 터져 나온다. “대학강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좋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맞고 보람이 있어서 이 일을 계속할 뿐이지요.”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40%, 교양과정 수업의 70%가 약 3만에 이르는 강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들은 대부분 30~40대의 연령으로 가장 정력적이고 왕성하게 학문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학문의 주도적 세대이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물론이고 학문의 질과 수준도 결국 이들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적 궁핍과 불안한 신분, 사회의 물이해에 대한 대학강사들의 항변을 담은 이 책을 남의 이야기라고 던져버릴 수 없는 이유도 여기 있다. 대학강사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지적 재원'이라고 강조하는 심선옥씨는 대학강사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학문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박남정 기자



‘전강노’.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의 약칭이다. 대학강사들이 웬 노동조합이냐고 의아해 할 많은 사람들에게 대학강사들이야말로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과 왜곡된 인식 속에서 불안정하게 고용된 ‘지식 노동자’임을 알려주는 책이 나왔다. 《대학이여 우리는 희망없이 네 이름을 부를 수 없다》(삼신각)가 그것이다.

“처음 기획할 때는 이 책의 제목을 《배꼽잡는 대학강사 이야기》로 정하고, 강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신나고 유쾌한 이야기들을 수록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청탁 과정에서 대학강사 생활이 도무지 신나고 유쾌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쓰겠냐는 반론들이 많아 기획을 다소 변경해야 했습니다.”

이 책의 편집을 책임졌던 심선옥(33, 상지대 강사, 국문학) 전강노 편집실장이 들려주는 뒷이야기다.

시간당 2500원을 넘지 않는 강의료(지난해 처음 치른 임금협상 덕분에 많이 오른 금액이다), 아무런 예고나 공식 절차도 없이 날아오는 ‘해고 통지’, 무보수로 버티기엔 너무 긴 5개월의 방학기간은 대학강사들을 ‘등쳐가(아내 등쳐먹고 사는 남편)’, 강의 있는 곳이면 열차타고 비행기타고 어디든 가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 ‘보따리 장수’의 신세로 전락시킨다.

교수도 아니고 교직원도 아니며 학생은 더구나 아니어서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학강사들의 어쭙잖은 위치는 신랄감 후보 30위를 뽑는 한 설문조사 결과 대학강사가 25위를 차지했다는 데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사람의 삶을 담은 꽃이야기

《나의 꽃 문화 산책》
펴낸 손광성씨

“꽃은 인간의 삶과 더불어 왔지요. 아마도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이 사람들 삶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일 거예요.”

꽃의 어떤 요소들은 인간의 삶을 투명하게 반영한다. 그래서 꽃에는 이야기거리가 많다. 지는 모습이 좋은 꽃, 추위 같은 시련을 겪어야만 아름답게 피는 꽃을 보면 정말 ‘잘 산’ 사람의 인생을 본 것처럼 숙연해진다.

손광성씨는 개인적으로 수련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살아서는 청초하고, 정결하게 살다가 사라질 때는 물에 폭 잠겨버리는 수련처럼 그 마지막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 7년이나 걸려 겨우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낸 마음도 그런 연유인듯 싶다.

“어떤 독자가 전화를 했어요, 책을 읽고 나니 길가에 허드레 꽃도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손광성씨는 자신이 내놓은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바란다.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 먹었던 그림 전시회도 미루고 생각지도 않았던 속편을 준비하고 있다. 나이도 적지 않은데 또 몇 년이 걸려 책이 나올지, 마음이 바쁘다.

—이현주 기자

꽃에 대한 소박한 관심이 예쁜 책 한 권으로 태어났다.

해화여교 교사 손광성씨(59)가 펴낸 《나의 꽃 문화 산책》(을유문화사)은 식물학자도, 전문가도 아닌 다만 꽃을 좋아하는 아마추어의 저작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요즘들어 우리 꽃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꽃에 관한 책도 많이 나왔지만, 저는 좀 색다른 시각으로 다가가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꽃을 생물학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정서적으로 살펴보는 생각이었죠.”

꽃이 좋아 가까이에 두고 이것저것 기르다 보니 꽃이 피고 질 때 자연히 감상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또 꽃을 그리는 화가이니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고, 문헌이나 시를 보아도 관련대목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 궁금증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 꽃 이름은 왜 이렇게 생겼나 하는 단순한 질문부터 꽃이 가지는 상징성까지.

“인류가 꽃에 대해 관심을 가진 지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꽃에는 무궁무진한 의미가 깃들게 됐지요. 그 의미를 뿌리부터 파헤쳐 보고 싶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원추리를 머리에 꽂고 다니는 것은 원추리의 꽃봉오리를 닮은 아들을 바라는 동중주술이며, 양귀비꽃씨를 부부가 마주 앉아 뿌리는 것은 다산에 대한 기원이다. 일제하에 독립운동의 구심점이기도 했던 무궁화의 역사적 상징성은 또 어떤가. 꽃에 얽힌 전설이나 신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